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7. 18. ~ 07. 24.

전남농업정보

94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과일류 · 과채류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 고품질 파프리카 일본 홋카이도 진출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가을작형 억제재배 미니단호박 적정 수확시기 및 저장조건
· 수출시장 겨냥 차 유기자재 기술개발 박차

정책동향

· 축산 6차산업 가공·체험·치유로 판 키운다
·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사업신청 및 홍보

·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소득증대 우수사례 15건 발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 영향으로 23~24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4~10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벼 먹노린재, 노지고추·수박 탄저병, 노지고추 바이러스병,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과일류 (사과·배·복숭아·포도) 관측
- ▶ 과채류 (토마토·참외·수박·오이·애호박·풋고추)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총력
- ▶ 나주시, 배 산업 활성화에 30억원 지원
- ▶ 광양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강소농 교육 실시
- ▶ 구례군, 덕담골오리오빠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상 받아
- ▶ 보성군, 아열대과수 소득작목 육성 사업 추진
- ▶ 화순군, 복숭아 수확기 현장 기술지원 강화
- ▶ 강진군, 귀농교육도 1대 1 맞춤 특별 과외시대
- ▶ 해남군, 느타리버섯 신제품으로 활로 찾는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 ▶ 우리 6차산업 제품 대중국 수출판로 확대 위한 MOU 체결
- ▶ 고품질 파프리카 일본 홋카이도 진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4

- ▶ 가을작형 억제재배 미니단호박 적정 수확시기 및 저장조건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토마토 관수장치 점검 방법
- ▶ 홍차와 허브류 이용 혼합차 제조방법
-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제조방법
- ▶ 수출시장 겨냥 차 유기재배 기술개발 박차
- ▶ 흑염소 동결정액 생산기술 개발
- ▶ 논물 수위 조절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 ▶ 복숭아 수확 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로 신선도 유지
- ▶ 달콤한 단옥수수 '고당옥' 소비자 입맛잡고 농가소득 쑥쑥!
- ▶ 시설원예 난방비 30% 잡는다

❁ 정책 동향 41

- ▶ 농촌진흥청, 축산 6차산업 가공·체험·치유로 판 키운다
- ▶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 해외 농업정보 44

- ▶ [유럽연합] EU 클리포사이트 사용기한 18개월 연장결정
- ▶ 달콤한 비스킷에 빠진 인도네시아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7.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로 인해 전일 대비 0.7%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은 수확에 위협이 되는 날씨의 완화와 매수포지션 청산으로 전일 대비 2.8%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11.68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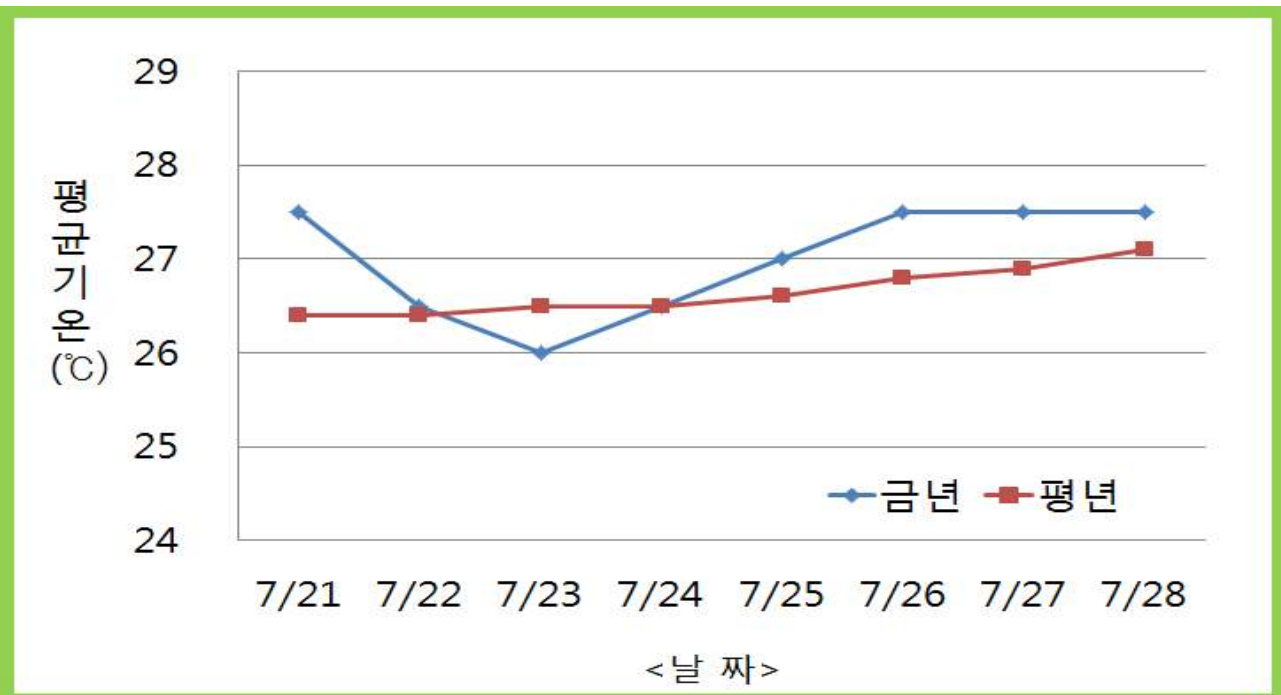
- ▶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소득증대 우수사례 15건 발굴
- ▶ 여름철 농식품 정보는 '소비공감' 에게 물어보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0	26.7	0.4	30.3	30.9	-0.6	23.8	23.5	0.2	7.7
7. 21.(목)	27.5	26.4	1.1	32.0	30.5	1.5	23.0	23.2	-0.2	6.7
7. 22.(금)	26.5	26.4	0.1	30.0	30.5	-0.5	23.0	23.3	-0.3	6.6
7. 23.(토)	26	26.5	-0.5	28.0	30.6	-2.6	24.0	23.4	0.6	9.4
7. 24.(일)	26.5	26.5	0	29.0	30.7	-1.7	24.0	23.5	0.5	9.9
7. 25.(월)	27	26.6	0.4	30.0	30.8	-0.8	24.0	23.5	0.5	8.8
7. 26.(화)	27.5	26.8	0.7	31.0	31.0	0.0	24.0	23.7	0.3	7.9
7. 27.(수)	27.5	26.9	0.6	31.0	31.2	-0.2	24.0	23.7	0.3	7.6
7. 28.(목)	27.5	27.1	0.4	31.0	31.5	-0.5	24.0	23.8	0.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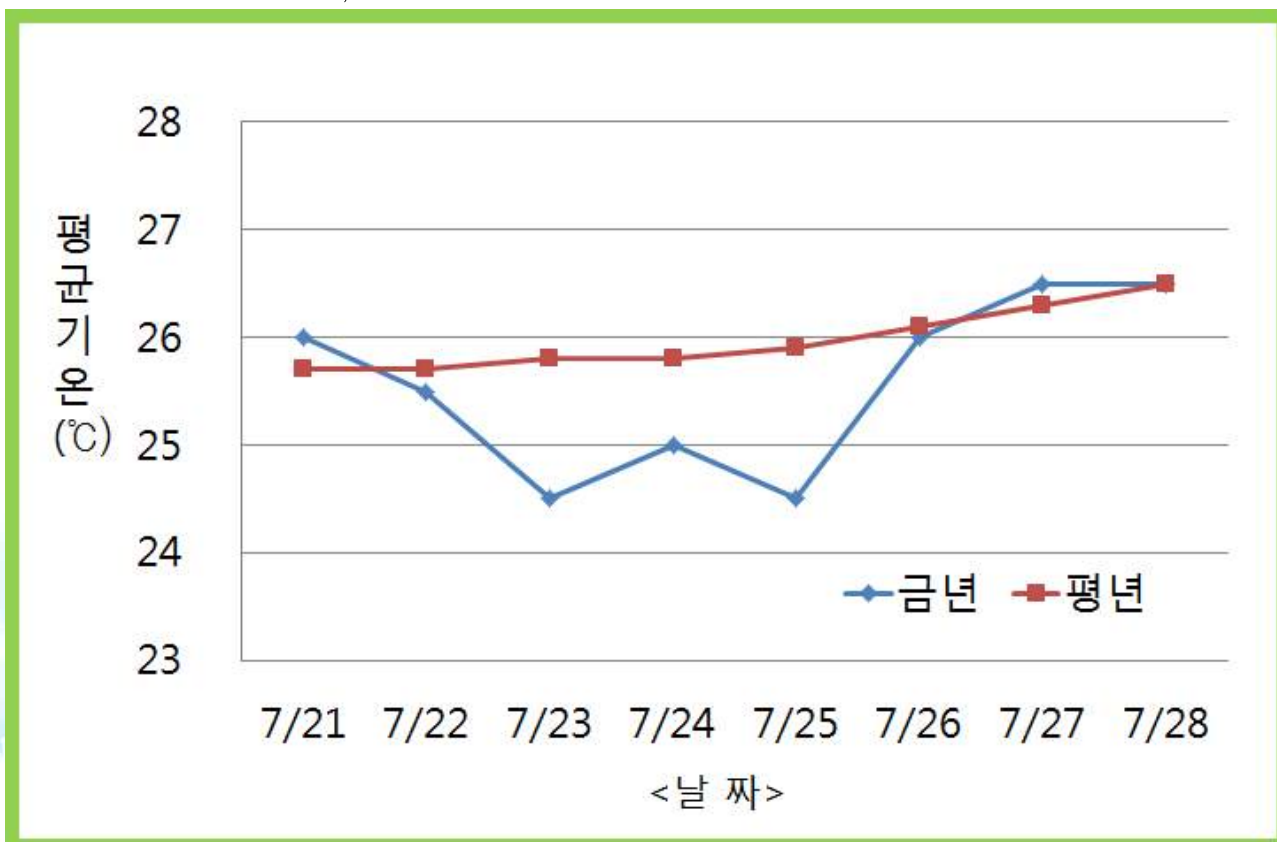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6	26.0	-0.4	28.6	29.6	-1.0	22.5	23.6	-1.1	5.5
7. 21.(목)	26	25.7	0.3	30.0	29.2	0.8	22.0	23.0	-1.0	4.8
7. 22.(금)	25.5	25.7	-0.2	29.0	29.3	-0.3	22.0	23.0	-1.0	4.5
7. 23.(토)	24.5	25.8	-1.3	26.0	29.2	-3.2	23.0	23.0	0.0	6.2
7. 24.(일)	25	25.8	-0.8	27.0	29.4	-2.4	23.0	24.0	-1.0	6.2
7. 25.(월)	24.5	25.9	-1.4	27.0	29.5	-2.5	22.0	24.0	-2.0	6.3
7. 26.(화)	26	26.1	-0.1	30.0	29.8	0.2	22.0	24.0	-2.0	5.2
7. 27.(수)	26.5	26.3	0.2	30.0	29.9	0.1	23.0	24.0	-1.0	6.1
7. 28.(목)	26.5	26.5	0.0	30.0	30.3	-0.3	23.0	24.0	-1.0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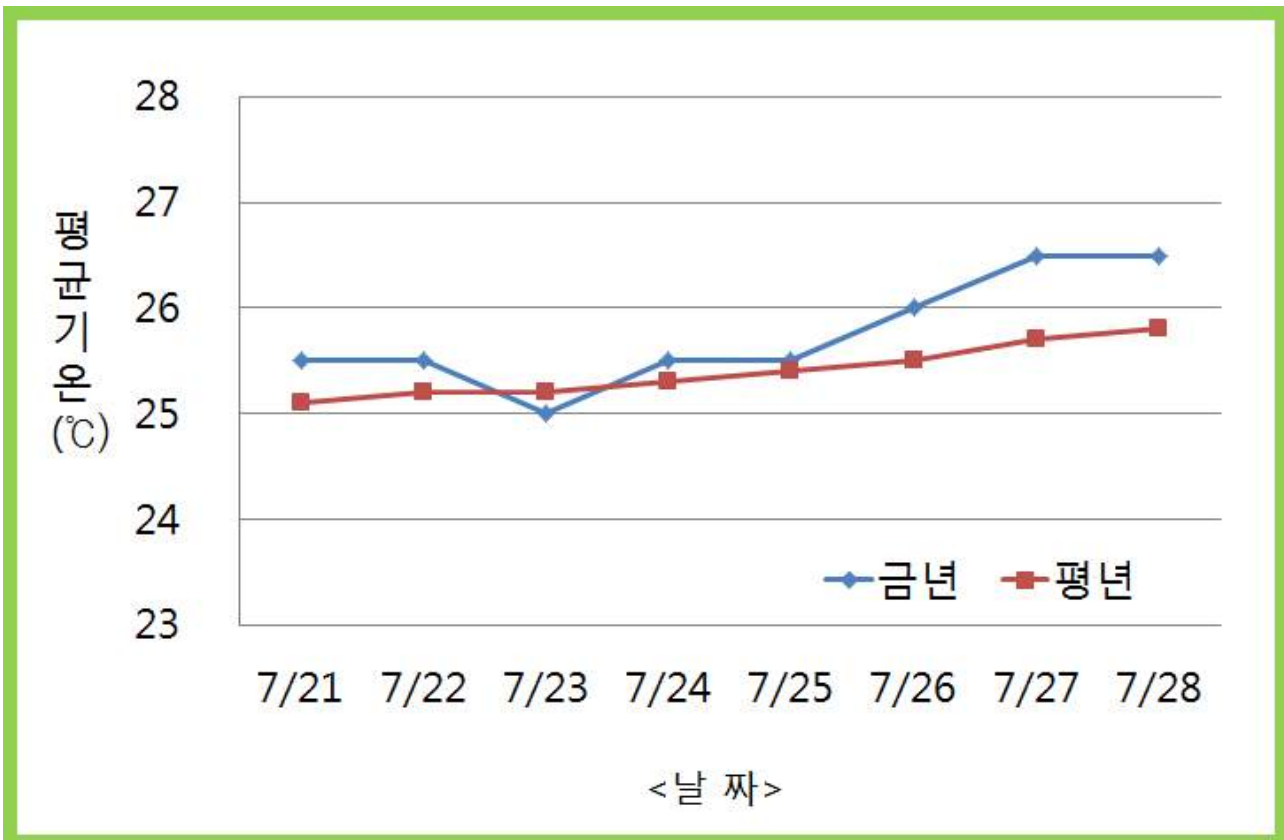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8	25.4	0.4	27.8	28.4	-0.6	23.8	23.2	0.5	7.5
7. 21.(목)	25.5	25.1	0.4	28.0	28.1	-0.1	23.0	22.9	0.1	8.5
7. 22.(금)	25.5	25.2	0.3	28.0	28.2	-0.2	23.0	23.0	0.0	8.2
7. 23.(토)	25	25.2	-0.2	26.0	28.2	-2.2	24.0	23.0	1.0	8.8
7. 24.(일)	25.5	25.3	0.2	27.0	28.2	-1.2	24.0	23.1	0.9	8.1
7. 25.(월)	25.5	25.4	0.1	27.0	28.3	-1.3	24.0	23.2	0.8	7.2
7. 26.(화)	26	25.5	0.5	28.0	28.5	-0.5	24.0	23.4	0.6	5.5
7. 27.(수)	26.5	25.7	0.8	29.0	28.7	0.3	24.0	23.5	0.5	6.8
7. 28.(목)	26.5	25.8	0.7	29.0	28.8	0.2	24.0	23.6	0.4	6.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7. 16. ~ 7. 31.)

농촌진흥청은 벼 먹노린재, 고추 탄저병, 수박 덩굴마름병, 과수의 깍지벌레류, 응애류, 갈색무늬병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장마철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벼 먹노린재

- 최근 고온으로 충남·전남·경남의 산간 주변 논 재배지역에 먹노린재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 공동방제

□ 주의보 : 노지고추·수박 탄저병, 노지고추 바이러스병

- 최근 탄저병 감염 위험이 높은 날이 많고 바이러스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적으로 매개충 등 방제 철저

□ 주의보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 발생이 빠르고 일부지역 피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 방제 필요

□ 주의보 : 사과 갈색무늬병

-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 주의보 : 검역병해충(사과·배 화상병 등), 가지 검은마름병

- 세균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정 작업 시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발생 과원의 잔재물, 접수, 삼수 등 외부로 유출 금지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과일류 (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관측

- 포도·사과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복숭아·배는 증가 전망
 - 복숭아 7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을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늘어 전년보다 16% 증가 전망
 - 7월 백도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상품 4.5kg에 1만 5천~1만 7천원 전망
 - 포도 7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을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생육 양호하지만 재배면적 줄어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 7월 포도 가격은 출하량 적지만, 여름 대체과일(복숭아·자두) 많아 전년보다 낮을 듯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전년보다 4% 적을 전망
 - 저장사과의 7월 출하량 전년보다 30% 증가, 햇사과는 비슷할 전망
 - 저장사과인 7월 후지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2만 4천~2만 6천원 전망
 - 저장사과 가격 약세 지속되어 7월 햇사과인 쓰가루 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줄었지만 단수 늘어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 배 봉지수는 착과량 많아 전년보다 15% 증가, 생산량은 7% 많을 것으로 전망
 - 7월 신고 가격은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상품 15kg에 4만 3천~4만 7천원 전망

과채류 (토마토 · 참외 · 수박 · 오이 · 애호박 · 풋고추) 관측

□ 수박·풋고추를 제외한 과채류 7월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토마토·참외 7월 가격 작년보다 낮고, 수박은 비슷할 전망

- 일반토마토 7월 가격은 상품 10kg에 8천~1만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방울토마토 출하량 증가로 원형·대추형 모두 작년보다 낮을 듯
- 참외 7월 가격은 상품 10kg에 1만 4천~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수박 7월 가격은 상품 1kg에 1,300~1,5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할 전망

○ 오이·애호박 7월 가격 작년보다 낮고, 풋고추는 높을 듯

- 백다다기오이 7월 가격은 상품 100개에 2만 6천~3만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애호박 7월 가격은 상품 20개에 7천~1만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청양계풋고추 7월 가격은 상품 10kg에 3만 9천~4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듯

○ 7~8월 정식면적 전망

- 일반토마토·원형방울토마토·수박·취청오이 7~8월 정식의향은 감소 전망
- 백다다기오이 7~8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애호박은 비슷할 듯
- 대추형 방울토마토 7월 정식면적은 증가하나, 8월은 비슷
- 청양계풋고추 7월 정식면적 증가하나, 8월은 감소 전망
- 녹광풋고추 7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8월은 비슷할 듯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7. 1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8)	1주일전 (07/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품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2,000	150,000	150,000	139,000	186,733	↑ 9.4	↓ 18.6
	고구마(밤)	10kg	27,200	28,000	30,700	34,100	36,700	↓ 20.2	↓ 25.9
	감자(수미)	20kg	18,800	19,400	22,700	26,300	23,867	↓ 28.5	↓ 21.2
채 소 류	배추(봄)	1kg	840	700	573	628	636	↑ 33.8	↑ 32.1
	양배추	10kg	6,900	6,500	6,575	7,050	5,197	↓ 2.1	↑ 32.8
	오이(다다키계통)	10kg	22,000	19,667	15,083	26,722	27,381	↓ 17.7	↓ 19.7
	애호박	8kg	17,600	17,400	14,700	12,750	17,263	↑ 38.0	↑ 2.0
	토마토	10kg	16,800	15,000	13,300	22,300	19,003	↓ 24.7	↓ 11.6
	당근	20kg	30,200	30,200	30,100	31,000	33,267	↓ 2.6	↓ 9.2
	건고추(화건)	60kg	680,000	710,000	710,000	820,000	834,000	↓ 17.1	↓ 18.5
	풋고추	10kg	49,600	48,400	33,800	35,950	39,240	↑ 38.0	↑ 26.4
	마늘(깐마늘)	20kg	142,000	153,000	179,000	131,000	106,520	↑ 8.4	↑ 33.3
	양파	20kg	14,000	13,600	14,450	22,700	15,587	↓ 38.3	↓ 10.2
	대파	1kg	1,640	1,690	1,830	2,153	1,459	↓ 23.8	↑ 12.4
	파프리카	5kg	14,600	13,000	14,450	12,600	17,747	↑ 15.9	↓ 17.7
	멜론	8kg	19,200	19,600	26,550	18,500	22,339	↑ 3.8	↓ 14.1
	방울토마토	5kg	16,000	15,400	12,050	12,700	11,473	↑ 26.0	↑ 39.5
	수박	1개	15,400	16,000	12,850	13,900	15,460	↑ 10.8	↓ 0.4
과 류	사과(후지)	10kg	37,800	37,800	36,000	44,533	54,231	↓ 15.1	↓ 30.3
	배(신고)	15kg	49,600	48,600	45,500	39,600	64,733	↑ 25.3	↓ 23.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8)	1주일전 (07/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6,000	536,000	536,000	532,000	556,533	↑ 0.8	↓ 3.7
	느타리버섯	2kg	15,000	14,800	14,425	15,900	14,587	↓ 5.7	↑ 2.8
	새송이버섯	2kg	7,600	7,400	7,550	7,750	7,747	↓ 1.9	↓ 1.9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5	7,922	7,581	6,958	6,227	↑ 12.7	↑ 26.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22	2,274	2,180	2,296	2,172	↓ 7.6	↓ 2.3
	닭고기	1kg	5,789	5,186	5,541	5,220	5,764	↑ 10.9	↑ 0.4
	계란(특란)	30개	5,075	5,386	5,374	5,804	5,720	↓ 12.6	↓ 11.3
	우유	1리터	2,549	2,549	2,546	2,548	2,385	-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7. 18.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55 천원	6,018 천원	5,107 천원	↑ 0.6	↑ 18.5
	거세	7,298 "	7,315 "	6,567 "	↓ 0.2	↑ 11.1
송아지 (6~7월)	암	3,254 "	3,296 "	2,638 "	↓ 1.2	↑ 23.3
	수	4,004 "	4,048 "	3,161 "	↓ 1.0	↑ 26.6
육우(600kg)		3,151 "	2,572 "	3,317 "	↑ 22.5	↓ 5.0
젖소수송아지(7일령)		386 "	386 "	216 "	↑ 0	↑ 78.7
돼지(110kg)		364 "	399 "	264 "	↓ 8.7	↑ 37.8
육계(원/kg)		1,582 원	1,422 원	1,412 원	↑ 11.2	↑ 12.0
계란(원/특란10개)		1,059 "	1,058 "	1,217 "	↑ 0.1	↓ 12.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330천원/마리 (△ 32)

* (5,658 - 2,332 + 4,004)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총력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 늘려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는 지난해 개소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센터 운영 우수 지자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으며, 급식센터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친환경 인증농가에 장려금 5억원을 지원했다.
- 또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급식센터와 농가 간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 결과 지난해 전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1,987톤 중 여수산 공급실적은 900톤으로 45%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총 공급계획량 2,117톤의 63%인 1,352톤을 확보해 전년 대비 28%의 증가세를 보였다.
- 시 관계자는 “올해도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 장려금 지원과 학교급식 납품 ‘10대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배 산업 활성화에 30억원 지원

- 고품질 배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지원 확대 -

- 나주시는 친환경 고품질 나주배 생산 및 국내외 소비처 확대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등 나주배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먼저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관정개발, 배수시설, 덕시설개량 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9.3ha에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 신고 품종 편중재배에 따른 수분수 부족,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 추석명절 변동에 따른 조기 수확으로 미숙과 출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내 육성품종 보급 생산 단지 조성' 신규식재 6ha에 공선출하 등에 3억원, '수종갱신 및 고점갱신' 6.6ha에 1억 7천 5백만원이다.
- 과잉출하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고품질 배 계약출하를 위한 '무GA 배 계약출하사업' 100ha에 봉지·선별·포장비 등 3억원과, 맞춤형 고품질 수출 배 생산을 위해 '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200ha에 전용봉지, 운송·선별·포장비 등 3억원을 투입한다.
-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착과율이 20%정도 높아 생산량이 6만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품질 배 생산으로 나주배 판매확대와 수출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강소농 교육 실시

- 해충과 곤충 차이 파악 후 천적을 이용한 방제 강조 -

-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1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벌레박사로 알려진 한국생태연구소 이기상 소장을 초청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효율적 병해충 방제를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 이기상 소장은 농가들이 과도한 농약을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제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방제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해충과 곤충의 차이, 잡초와 야생식물의 차이와 특성을 파악한 후에 천적을 이용해 방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단순히 시기에 맞춰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병해충 발생을 확인한 후 적합한 방제시기를 결정해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광양시 중요 농산물인 매실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숭아씨 살이좀벌과 키위농가의 문제 해충인 각지벌레의 방제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 한편, 시는 7월 2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지강 과장을 초청해 농산물 수확 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8월 8일에는 제주대학교 현해남교수를 초청해 식물양분, 무기질비료, 영양제 등 좋은 비료와 퇴비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문의는 기술보급과 강소농 담당자(061-797-3559)로 연락하면 된다.

* 출처 : 광양시

■ 구례군, 덕담골오리아빠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상 받아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덕담골오리아빠 전철희 대표(명품오리영농조합법인)가 전남 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14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전철희 대표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후 2006년 용방면에 정착하여 기존 오리와 차별화한 유황오리를 생산하고 무항생제축산 인증, HACCP 인증을 받는 등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 또한, 「 덕담골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오리를 이용한 훈제, 떡갈비, 소시지, 유황오리백숙, 산수유고추장주물럭 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연 1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 전철희 대표는 “광고나 홍보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도 할 수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정보화 교육과 농산물 홍보·판매 멘토 역할을 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출처 : 구례군

■ 보성군, 아열대과수 소득작목 육성 사업 추진

- 레드향 2ha 신규 조성 -

- 보성군은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원을 들여 아열대과수 소득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진주)에 따르면 보성군의 남부해안지역은 따뜻한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으로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 재배시 타 지역 보다 수확시기, 당도,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만감류인 레드향 품종을 첫 도입하여 8농가에 2ha를 신규 조성하고 아열대 대표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레드향은 한라봉과 서지향(감귤)을 교배한 품종으로 일반 감귤보다 크기가 크고 납작하며 잘 익으면 붉은빛이 돌아 레드향이라 불린다. 당도는 14°Brix로 달고 과육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껍질이 잘 벗겨져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품종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유망과수 재배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복숭아 수확기 현장 기술지원 강화

- 기술지원반 2개조 11명 구성해 운영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명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수확기 현장 기술지원 강화에 나섰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무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돼 기술지원반 2개조, 11명을 구성해 잣빛무늬병, 세균구멍병, 복숭아순나방 등 병해충 예찰방제와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순 관내 과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30명을 선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복숭아에 대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5곳과 과수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곳을 운영해 농가의 방제적기를 판단,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화순군은 복숭아 재배면적이 190ha(360농가)로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복숭아 관련, 농업인 생산자조직 및 연구회(법인 1, 연구회 2개) 활동을 통해 명품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제8회 화순명품복숭아문화축제가 30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 * 출처 : 화순군



■ 강진군, 귀농교육도 1대 1 맞춤 특별 과외시대

- 귀농 선도농장에서 멘토·멘티제 운영, 큰 성과 -

- 전남 강진군이 운영하는 귀농 1:1 맞춤교육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귀농 1:1 맞춤교육은 강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보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이 낯선 농촌과 농업에 쉽게 적응하도록 선도농장에서 1:1로 귀농사례, 농업정보 등을 교육받고 체험 받을 수 있다. 현재 선도농장 2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차까지 교육이 진행됐다.
-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최대 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선도농가와 협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바쁜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크다.
- 강진으로 귀농을 결심한 강희곤(서울시 영등포구, 49)씨는 “따뜻한 남쪽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목적지를 선택하지 못했었다”며 “귀농 1:1 맞춤교육을 받고 농업과 귀농 정보뿐만 아니라 강진의 인심을 배우며 강진으로의 귀농에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 교육에 선도농가로 참여하고 있는 귀농 6년차 양미경(강진 도암면, 54)씨는 “초기 귀농정착 때 힘들었던 만큼 예비 귀농인들에게 정확한 귀농정보를 쉽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귀농체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많은 예비 귀농인들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귀농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은 귀농 초기 정착부터 선도농가로 되기까지의 종합 지원프로그램인 ‘귀농드림이’를 선보이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느타리버섯, 신품종으로 활로 찾는다

- 곤지 7호 본격 재배, 맛과 향 뛰어나 20~30% 높은 가격 -

- 해남군이 신품종 느타리버섯 재배로 소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 군은 올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을 통해 분양한 신품종 느타리버섯 곤지 7호를 성공리에 재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 해남군종균배양소(청록영농조합법인)에서 증식,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14농가 24동에 보급된 곤지 7호는 기존 느타리버섯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고 생산량도 많아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진 회색의 둥근 갓과 굵은 백색의 대 모양으로 병당 수량이 기존에 비해 10% 이상 많고, 저장기간 또한 일주일 이상 길어 유통기간을 크게 늘린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 가격 또한 2kg에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기존 품종보다 20~30% 높게 형성돼 재배사 1동(165㎡) 기준 7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 5월부터 시작된 도매시장 출하 결과 선물용 소비가 많은 명절 수요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소비시장의 반응이 뜨거워 앞으로 판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버섯은 항암효과를 비롯해 항염증, 성인병 예방, 면역기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춘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이다.
-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과 지역에 맞는 품종 보급으로 버섯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해남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 맛과 품질 좋아 일본에서 웰빙식품으로 인기짱 -

- 신안군은 해풍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은 단호박 20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 신안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수출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지난 4월에 35ha를 정식하여 7월에 430톤을 생산, 그중 200톤은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230톤은 내수 판매를 통해 3억 1천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 청정해역으로 잘 알려진 신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크게 알려져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 신안군은 민선 6기를 맞아 FTA 등 농산물 수입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읍·면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 연차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수출 농산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수출 단호박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생력농기계화 등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 우리 6차산업 제품 대중국 수출판로 확대 위한 MOU 체결

- ‘한·중 민간단체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 들기름과 쌀국수 등 우수한 우리 6차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국 민간단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전국 6차산업 인증 사업자협회, 중국 대련시에 위치한 진푸신구 전자상거래협회, 진푸신구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산업 제품의 대중국 판로 확대를 위한 한·중 민간단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올해 초 농식품부가 계획한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중국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채널을 구축해 우리 6차산업 제품의 수출판로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6차산업 인증자협회를 통해 우수한 6차산업을 중국 민간단체에 추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중국의 진푸신구 전자상거래협회와 진푸신구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실험구는 우리 제품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통관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에 앞장선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고품질 파프리카 일본 홋카이도 진출

- 최근 일본 최대 생협조직 'COOP삿포르' 108개 매장서 특판행사 개최 -

-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에 고품질의 우리 파프리카가 진출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NH무역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도쿄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홋카이도는 지리적인 특성상 물류 접근성이 취약해 여러번의 중간과정을 거쳐 파프리카가 공급되다보니 신선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 이에 NH무역과 aT 도쿄지사가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일본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COOP삿포르'를 통해 고품질의 우리 파프리카를 현지에 직접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름동안 COOP삿포르 108개 매장에서 '고품질 한국산 파프리카 특판행사'를 개최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행사기간 동안 NH무역과 aT 도쿄지사는 홍보용 파프리카 매대를 운영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높은 신선도와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고, 이를 접한 많은 홋카이도 소비자들이 우리 파프리카에 대해 매우 신선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장점으로 꼽았다.
- 김청룡 NH무역 대표이사는 "이번 파프리카 특판행사를 계기로 참외·애호박 등 농가소득 향상과 수급안정, 신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품목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홋카이도 지역 내 우리 농산물의 소비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가을작형 억제재배 미니단호박 적정 수확시기 및 저장조건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수확적기(시설재배): 수분처리 착과 후 55~60일 경과한 것

- 적정 후숙 조건: 실온(2~20℃)에서 15~20일

○ 수분처리 착과 후 경과 일수에 따른 수확 당시 과실 특성 (2015)

수확 일수 \ 특성	과중 (g)	과폭 (mm)	과장 (mm)	° Brix	경도 (g)	관능평가 분질감
수분 후 45일	309	91	56.7	9.9	8,521.4	1.73±0.25
수분 후 50일	333	95	58.9	10.3	13,258.7	2.20±0.40
수분 후 55일	349	96	59.4	11.1	15,568.6	4.12±1.24
수분 후 60일	353	97	59.9	11.9	15,990.3	4.60±0.22
수분 후 65일	384	98	62.3	13.7	16,587.4	5.86±0.15

○ 장기저장을 위한 큐어링(30℃, 7일) 조건 및 온도별 저장 기간

- 온도별 저장기간 : 8℃ 150일, 12℃ 120일, 실온(2~20℃, 1~4월 중) 90~120일, 12℃ 플라즈마 큐어링 조건에서 60일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저장기간 연장 30→150일, 후숙기간 단축 15~20→5~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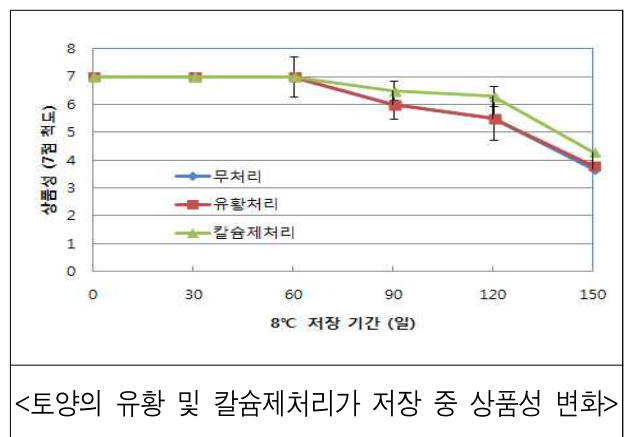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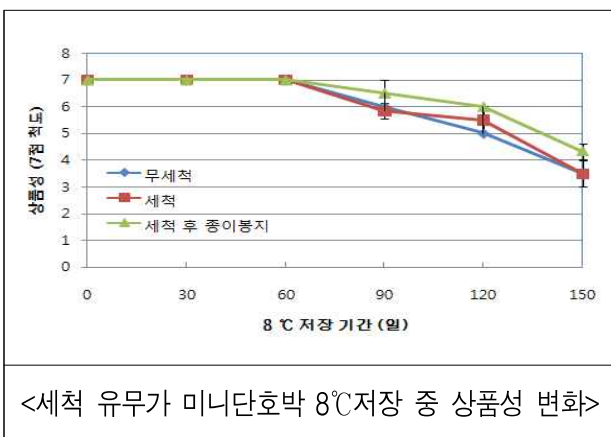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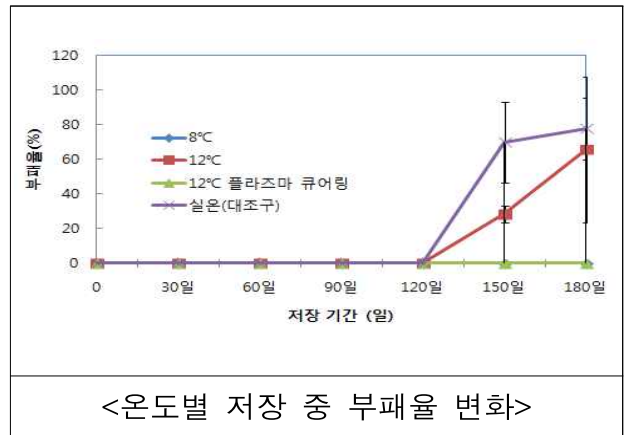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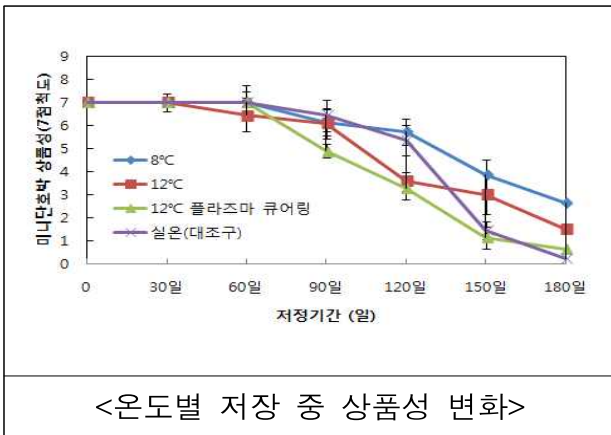
○ 홍수출하 회피 및 연중 생산, 고가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 : 7,280천원/10a

○ 반축성재배 3,850천원, 억제재배 3,430천원/10a (25~35천원/4kg)

-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 : 6월 중순 25,000원/4kg, 11월 하순 35,0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가을작형 억제재배 수확적기(시설재배) : 수분처리 착과 후 55~60일 경과한 것
- 적정 후숙조건 : 실온(2~20℃, 평균 13℃)에서 15~20일
- 장기저장을 위한 저장 전 큐어링 조건 : 30℃, 7일간 예건
- 저장 온도별 저장 가능기간
 - 8℃ 150일, 12℃ 120일, 실온(2~20℃, 1~4월 중) 90~120일, 12℃ 저장고 내 플라즈마 큐어링 조건에서 60일 저장 가능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오봉운, 조정숙, 강정화, 이유석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토마토 관수장치 점검방법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토마토 수경재배로 재배 시 근권 수분함량을 30~50% 까지 각각 제한하여 재배한 후 증산이 가장 활발한 맑은 날 오후 2시에 엽온을 조사한 결과 수분함량이 45% 이상에서는 엽온이 주변 기온보다 1~3℃ 정도 낮으나 35% 이하에서는 1~3℃ 높아 열화상 이미지만으로 구별이 쉬움
- 점적 단추를 제거하고 1일 후 엽온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주변 엽보다 신초부위 상위 엽온이 1~3℃ 높게 관찰됨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개별농가가 수분 스트레스 부족 구간 또는 관수 이상 구간을 찾기 위해서 개별식물체 각각을 점검해야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조기에 관수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음
- 열화상 카메라를 군락 상단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수시로 관수 이상과 식물체 이상 징후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물의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맑은 날 오후 2~3시경 군락상단에서 군락의 상위엽을 포함하여 촬영
- 정상인 상위엽의 경우 주변 기온보다 1~3℃ 정도 낮게 관찰되는데 수분이 부족한 잎의 경우는 주변 기온과 같거나 1~3℃ 높아지며 주변 엽보다 엽온이 높게 관찰되므로 그 부분의 관수장치를 점검함
- 근권에 공급되는 관수 또는 양액이 부족한 구간에서도 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동반하여 식물체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희곤, 김효중, 손동모

■ 홍차와 허브류 이용 혼합차 제조방법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여름, 가을 홍차(70%)+허브류30%(페퍼민트 10, 로즈마리 5, 스테비아 8, 뽕잎 5, 콘플라워 2) 비율로 혼합하면 홍차의 향기와 맛 기호성이 향상됨
- 홍차와 허브류 이용 혼합차 기호성 (2015)

차종류	총아미노산 (%)	유리당 (%)	탄닌 (%)	색도 (a)	관능평가 (점)
홍차 45%+ 허브류 55%	1.6	3.51	10.4	1.0	52.9
홍차 60%+ 허브류 40%	2.0	4.20	9.4	1.4	60.5
홍차 70%+ 허브류 30%	2.3	4.61	7.6	1.9	66.7

- ※ 허브류 55%(페퍼민트 11, 로즈마리 22, 스테비아 22)
 허브류 40%(페퍼민트 10, 로즈마리 15, 스테비아 10, 뽕잎 5)
 허브류 30%(페퍼민트 10, 로즈마리 5, 스테비아 8, 뽕잎 5, 콘플라워 2)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연중 다양한 혼합차 제품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수입 발효차 150억 시장 대응
- 여름, 가을 찻잎 이용 엽차용에서 혼합홍차 제조로 부가가치 향상
 (엽차 8,000원/kg → 혼합 홍차 20,000원/kg, 250% 증)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포장재 및 인건비 : 600,000원 - 엽차생산 : 120kg × 8,000원 = 960,000원/10a - 혼합재료 : 10kg × 20,000원 = 200,000원 - 계(A) : 1,760,000원/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가을홍차 부가가치 향상 : 240kg × 20,000원 = 4,800,000원/10a - 계(B) : 4,800,000원
○ 추정 수익액(B-A) = 3,040,000원/10a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여름, 가을 찻잎 이용 홍차 제조방법은 시들리기(실내상온 24시간) → 비비기(25분) → 상온발효(실내상온 2~3시간) → 건조(120℃, 20분) 과정
- 여름, 가을 홍차(70%) + 허브류 30%(페퍼민트 10, 로즈마리 5, 스테비아 8, 뽕잎 5, 콘플라워 2) 비율로 혼합



<허브혼합재료>



<허브혼합홍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김영옥, 박장현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제조방법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여름, 가을 홍차(70%) +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비율로 혼합하면 홍차의 향기와 맛 기호성이 향상됨
- 홍차와 특용작물 이용 혼합차 기호성 및 기능성(2015)

차 종류	총아미노산 (%)	유리당 (%)	색도 (a)	관능평가 (점)	플라보노이드 (mg/100g)	아질산 소거능(%)
홍차50%+특용작물50%	1.7	3.75	1.1	49.3	1,360	19.6
홍차60%+특용작물40%	2.0	4.33	1.4	54.9	1,330	21.3
홍차70%+특용작물30%	2.3	4.40	1.6	61.3	1,460	23.4

※ 특용작물 50%(어성초 25, 자소엽 25)

특용작물 40%(어성초 15, 자소엽 15, 뽕잎 10)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연중 다양한 혼합차 제품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수입 발효차 150억 시장 대응
- 여름, 가을 찻잎 이용 엽차용에서 혼합홍차 제조로 부가가치 향상
(엽차 8,000원/kg → 혼합 홍차 20,000원/kg, 250% 증)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포장재 및 인건비 : 600,000원 - 엽차생산 : 120kg × 8,000원=960,000원/10a - 혼합재료 : 10kg × 10,000원=100,000원 - 계(A) : 1,660,000원/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가을홍차 부가가치 향상 : 240kg × 20,000원= 4,800,000원/10a - 계(B) : 4,800,000원
○ 추정 수익액(B-A) = 3,140,000원/10a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여름, 가을 찻잎 이용 홍차 제조방법은 시들리기(실내상온 24시간) → 비비기(25분) → 상온발효(실내상온 2~3시간) → 건조(120℃, 20분)과정
- 여름, 가을 홍차(70%) + 특용작물 30%(어성초 10, 자소엽 10, 뽕잎 5, 민트 5) 비율로 혼합



<특용작물 혼합홍차>



<혼합홍차 관능평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김영옥, 박장현

■ 수출시장 겨냥 차 유기재배 기술개발 박차

- 고품질 유기차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에 앞장서다 -

- 작년 초, 온 나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녹차의 항균작용과 면역력 강화,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 국내에 유기농으로 재배·생산 되는 녹차가 중국 수출물량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그러나 현재 녹차 재배면적은 2,601ha로 다른 작목에 비해 매우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유기재배면적은 396ha로 15.2%를 점유하고 있다.
- 그동안 농가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유기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없고, 병해충 발생 시 친환경적 방제기술 부족, 연중 6~7회 걸쳐 잡초를 제거하는 힘든 작업과 적정한 토양 양분 관리기술 등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차나무 유기재배에 적합한 품종개발 △녹비작물과 유기자재를 이용한 효율적인 토양 양분관리 △천연자원을 이용한 저비용 농자재 제조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등 차나무 유기재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차산업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유기재배 적응성 검토와 녹비작물 및 유기농자재 활용 토양 적정 양분관리 체계화, 잡초방제를 위한 피복재료 선발, 차밭에 발생하는 노린재 및 차응애 등 각종 병충해 친환경 방제법 등을 체계화시켜 매뉴얼화 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흑염소 동결정액 생산기술 개발

- 흑염소 인공수정을 위한 동결정액 생산기술 개발 연구사업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흑염소 사육농가의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수정 시 활용되는 동결정액 생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흑염소는 주로 군집사육을 통한 자연교배에 의해 후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근친도 상승에 따른 생산성 저하, 질병 전파, 씨염소 교체비용 상승문제 등이 상시 대두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고자 축산연구소는 올해부터 흑염소 동결정액 생산 기술개발에 착수 하였다. 주요내용은 흑염소 동결정액 생산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정액의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보존액 개발, 동결 보존 기술체계 확립, 인공수정 기술개발이다.
- 현재까지 동결정액 제조 기술개발 결과는 해동정액의 정자 생존율이 인공수정에 활용이 가능한 80%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다른 가축의 상용화된 동결정액의 평균 생존율이 7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결과이며, 인공수정 시 수태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바탕으로 동결정액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결보존액, 보존기술과 관련한 추가 연구를 추진하여 “흑염소 동결정액 제조 표준화 매뉴얼”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동결정액을 활용한 흑염소 인공수정 기술 개발을 위한 수정적기 판별, 인공수정 기구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흑염소 사육농가에 관련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논물 수위 조절로 온실가스 감축한다

- 농촌진흥청, 논물 관리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비교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벼를 재배할 때 논물 관리만 잘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벼 재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로, 논에 물이 찼을 때 땅 속의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메탄이 발생하고, 논에 물이 없어 땅이 마를 때는 질소질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한다.
- 벼 재배(삼광벼) 시험지에서 4종류의 논물 관리방법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논물을 2~4cm 깊이로 얇게 대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4종류의 논물 관리방법은 논물을 6cm 이상 항상 채워두는 '상시담수', 이앙 40일 뒤 2주간 물을 빼주는 '간단관개', 이앙 후 30일간 상시담수 후 2~4cm 깊이로 논물 얇게 대기, 2~4cm 깊이로 논물 얇게 대기 등이다.
- 연구결과를 보면, 논물을 얇게 댔을 때,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69.3% 줄었다. 간단관개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59% 가량 감소했다.
- 이앙 초기 30일 동안 상시담수 후에 논물 얇게 대기 방식으로 바꾸면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0.7%, 간단관개에 비해서는 47.5% 줄었다.

- 논물 관리방법에 따른 잡초 발생량은 논물 얇게 대기(37.8kg/ha), 간단관개(20.7kg/ha), 이앙 초기 30일 동안 상시담수 뒤 논물 얇게 대기(14.3kg/ha), 상시담수(0.8kg/ha) 순으로 나타났다.
- 벼 수확량은 초기 30일 동안 상시담수한 뒤 논물 얇게 대기 방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김건엽 연구사는 “이앙 초기부터 논물 얇게 대기를 할 경우 잡초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상시담수를 시행하고 이앙 30일 이후에 논물을 2~4cm로 얇게 대면 온실가스와 논물 사용량은 줄이면서 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이 연구결과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복숭아 수확 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로 신선도 유지

- 농촌진흥청, CO₂ 농도 30%, 3시간 처리로 물러짐 늦추면서 부패율 줄여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복숭아를 수확한 뒤 이산화탄소(CO₂) 처리를 하면 과실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통 중 썩은 과일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복숭아는 10℃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 유통 시 과육이 갈변하거나, 스펀지화 현상이 나타나는 저온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온유통을 한다.
- 그러나 상온유통 중 복숭아는 과육이 급격히 물러져 쉽게 멍이 들고, 곰팡이가 발생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는 복숭아 유통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밀폐용기(챔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을 확립했다.
- 방법은 복숭아를 수확 한 뒤 팔레트 단위로 포장해 밀폐용기(챔버)에 넣고,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30%가 되도록 처리한다. 이 상태를 약 3시간 동안 유지한 뒤 유통한다. 이 기술은 노동력이 적게 들며,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복숭아 '미홍'은 상온(24℃) 유통 3일 뒤, 처리를 하지 않은 복숭아에 비해 2배가량 단단하게 유지돼 과실의 물러짐도 늦게 나타났고, 부패율 또한 14에서 6%로 줄었다.

- 복숭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면, 과실의 세포벽이 단단한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상온 저장, 유통 중 물러짐 현상을 늦추고 부패율도 줄어든다.
- 복숭아 산지유통센터에서 출고 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결과, 유통과정 중 부패과 발생이 억제돼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이진수 연구사는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방법이 간단해 현장적용성이 높고, 단기간의 처리만으로 복숭아 과실의 품질유지 효과를 나타내며, 부패를 억제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이다”라고 전했다.
- “또한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상온 유통하는 복숭아의 썩은 과일 발생을 막아 손실률을 낮추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복숭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무처리 상온저장

▲ 이산화탄소 처리 상온저장

■ 달콤한 단옥수수 '고당옥' 소비자 입맛잡고 농가소득 쑥쑥!

- 당도 높고 재배 안정성 뛰어나 고소득 작물로 각광... 수입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달콤한 단옥수수 '고당옥' 품종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 '고당옥'의 당도는 24.37°Brix로 찰옥수수의 2~3배 이상이다. 또한, 풋내가 적고 전분 함량이 낮으며 낱알 껍질이 얇아 과일처럼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100g 당 147.6kcal 정도로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 일반인 대상 맛 평가에서도 찰옥4호·일미찰·얼룩찰1호·흑진주찰 등 찰옥수수를 제치고 '고당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지난해 고령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식행사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 '고당옥'은 농가 소득증대에도 한몫했다. 수매가격이 개당 400원으로 찰옥수수(평균 300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고당옥'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은 10a당 130만원으로 기존 찰옥수수 재배 시 90만원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배기간이 짧아(출사일수 66일) 2기작도 가능하고, 소득 작물인 양파나 마늘 뒷그루로 재배하기 좋다.
- 경북 고령에서는 벼+양파·마늘 대신 고당옥+양파·마늘을 재배 하면서 심기차례(작부체계)가 안정됐고, 이에 양파·마늘의 수량성과 상품성이 향상됐으며 소득도 10a당 약 65만원이 늘었다.

- '고당옥'을 찾는 소비자와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면적이 2012년 0.4ha에서 지난해 6.6ha(59톤 생산)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20ha(18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은 수요가 늘고 있는 '고당옥'의 안정적인 종자 수급과 재배확대를 위해 종자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 고령 쌍림농업협동조합에 종자 생산, 판매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이전했고, 종자 대량생산을 위한 단지조성, 생산자와 가공업체 연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고당옥'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10년 내 재배 면적을 400ha까지 확대하고 연간 약 3,600톤 이상을 생산해 수입 단옥수수 물량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 단옥수수 수입현황 : 연간 35,000톤(수입액 445억원)
- 더불어 '고당옥'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현지적응성 검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옥수수 종자 가격은 kg당 약 5만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이규성 중부작물부장은 “단옥수수 '고당옥'의 종자 보급-생산-유통의 연결고리 체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라며, “국민에게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우량 품종 수출을 통한 국가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시설원에 난방비 30% 잡는다

-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연동비닐하우스 패키지기술' 개발 -

- 방울토마토 시설원에 난방비를 30%가량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 기술 상용화 시 시설원에 농가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연동비닐하우스 패키지기술'을 개발, 농가 보급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기술은 방울토마토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측면과 지상부에 알루미늄 커튼을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난방을 실시, 열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 측면 알루미늄 커튼은 100% 단열효과가 있고, 지상부 설치 커튼은 70% 차광 및 단열효과가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 국부난방은 수경재배 장치 밑으로 온수난방 관을 설치하고, 이 관을 통해 뜨거운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체 주위에 열을 공급하게 된다.
- 이 기술 적용 시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보다 29%가량 절감하고, 수확량은 6%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지난 2월 15일부터 1개월 간 3,300m² 규모의 연동비닐하우스에서 기존 난방방법과 패키지기술을 비교한 결과,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유류비와 전기요금 등이 81만 5,605원이 든 반면, 패키지기술은 58만 5,078원이 소요됐다.
- 1,0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패키지기술을 적용할 경우, 난방비는 78만 3,000원을 절감하고 수량증가에 따른 소득은 179만 6,800원 가량 증가해 모두 257만 9,800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 알루미늄 커튼 및 국부난방 시설 설치비는 1,880만원으로 7년 정도면 소요 비용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 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김경제 토마토팀장은 “국내 시설원에 농가 경영비 중 난방비는 30~40%로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에 달해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겨울부터 영농 현장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 팀장은 또 “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여름철 근권냉방·알루미늄 차광 스크린·포그 시스템을 이용한 패키지기술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라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패키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보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8. 정책 동향

◆ 농촌진흥청, 축산 6차산업 가공·체험·치유로 판 키운다

- 기술지원 농가 소득 평균 22.7% 늘어... 치유로 시범사업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자원과 산업의 창의적 연계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 축산 6차산업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생산·가공·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이를 통해 올바른 축산 식문화 정착과 함께 축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발굴과 맞춤형 기술지원, 동물매개 치유축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축산 6차산업 활성화' 추진전략과 계획을 밝혔다.
 - 먼저, '소규모 육제품 판매모델 설정', '신선치즈 제조방법 개발' 등 축산 6차산업화 연구개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과 자연, 전통 문화와 가공, 체험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추진한다.
-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 기술보급 결과,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 기술'과 '유가공품 생산기술'의 평균 소득이 각각 22.1, 2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과 목장형 유가공연구회(60여 농가), 소규모육가공연구회(회원 34명) 운영을 통한 유·육제품 가공 기술 전수로 소규모 가공 산업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는 자연치즈 제조기술 38종을 개발해 보급했으며, 소비자의 식습관을 고려해 저지방, 저염치즈 제조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 육가공 연구회원에게는 고부가 발효 육제품, 천연첨가제를 사용한 육가공품 제조법 등 소규모 육가공 전반에 대해 기술을 전수한다.
- 한편, 축산 자원을 치유와 위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유 축산을 추진한다.
 - 학생들이 직접 닭을 돌보는 ‘학교꼬꼬 실증시험’과 닭·유산양·토끼 등 중·소 가축을 활용한 ‘학교형 동물농장 모델’, 70여개 동물복지 축산인증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 모델’을 개발한다.
 -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제간식 상품모델도 발굴해 내년 시범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경관, 식품, 치유 등 축산의 가치를 6차산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7.14.~8.12. 기간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 정보기록, 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 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 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유럽연합] EU 글리포세이트 사용기한 18개월 연장결정

-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사용 승인이 18개월 연장되었다.
- 글리포세이트는 1970년대 미국 몬산토(Monsanto)사가 개발, 특허를 획득해 라운드업(Round up)이라는 농약으로 판매하다가 2000년대에 특허권 소멸 후 여러 기업에서 이 성분을 사용한 제초제를 판매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8억 2천 5백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고, 발암추정물질 2A로 분류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발암위험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환경단체 13만여명이 EFSA에 탄원서를 제출, 25개 회원국의 96명의 과학자들도 이 같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소비자들도 이 같은 성분에 대해 근심하기 시작했다. 농민단체들과 식품 기업들은 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산성 감소,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 제 3국으로 부터 경쟁력 위협 등의 연유로 해당성분의 사용금지 운동에 반대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달콤한 비스킷에 빠진 인도네시아

- 관련시장 연평균 14.3% 높은 성장세... 고급이색적인 맛 앞세워 틈새시장 공략 -

-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제품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등을 적극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 현지 시장조사기관인 피티데이터컨설팅(PT. Data Consul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비스킷 시장규모는 2011년 3조 3,500루피아(3,200억원)에서 2013년 4조 9,100루피아(4,310억원), 지난해 6조 2,300루피아(5,470억원)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4.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업체들도 관련 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킷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미 해외 제과기업들이 현지 비스킷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고급스러움을 내세울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을 앞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초코파이와 쿠키다스 등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또 비스킷 구매에 있어서 자국산의 저렴한 제품보다는 품질이 좋고 포장 디자인이 세련된 수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제품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포장 디자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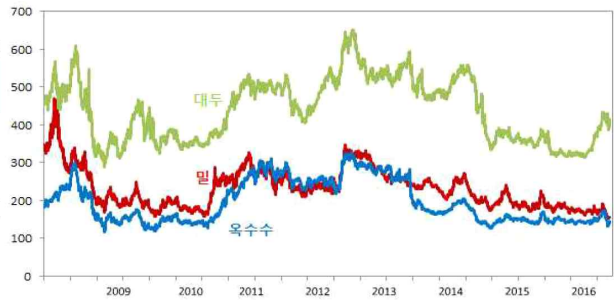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7. 18.(시카고 선물거래소)

일기 예보 개선에 따른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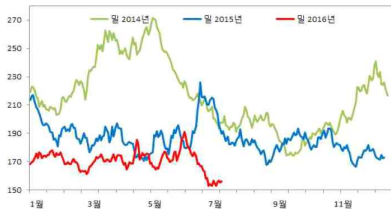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7.15)	전일대비	전월평균 ('16.6)	2015 평균
밀	156.01	▲0.7%	174	186
옥수수	138.66	▼2.8%	161	148
대두	394.03	▼3.5%	421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로 인해 전일 대비 0.7% 상승 마감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겨울 밀 수확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밀 공급량과 기록적인 기말 재고량에 의해 제한적임. 프랑스 자문회사인 FranceAgriMer는 프랑스 연질 밀의 49%가 Good/Excellent 등급이라고 판정 하였으며 이는 주 초반 59%보다 하락한 수치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9월물 적색 연질 밀 가격은 부셸 당 \$4.35에서 약 1센트 하락하였고, 켄자스 시티 상품 거래소의 적색경질 밀 가격은 \$4.20에서 3센트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은 수확에 위협이 되는 날씨의 완화와 매수포지션 청산으로 전일 대비 2.8% 하락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환황 종목 옥수수는 부셸 당 \$3.58에서 약 6센트 하락하였음. 옥수수 가격은 주 초반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날씨 전망 개선으로 인해 목요일부터 다시 안정되었음. 중서부 지역의 중심에 있는 옥수수는 지금 수분 단계에 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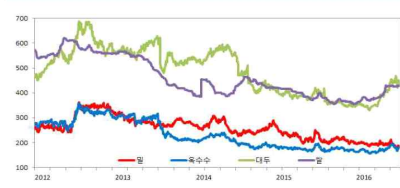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지역에 수확에 위협이 되는 날씨가 완화되며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3.5% 하락 마감하였음. 몇몇 일기 예보관들은 다음 주 더위가 완화되고 비 소식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불확실한 기후는 매도커버를 유도하였음. USDA에 따르면 개별 수출업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두 320,000톤을 판매하였음. 중국은 주어진 대두의 99.7%, 즉 300,386톤을 판매하였음. 말레이시아 팜 오일 선물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8월물 대두 가격은 부셸 당 \$10.78에서 약 5센트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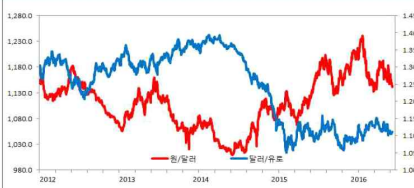
관련동향

- 밀, 옥수수,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보험세 유지.
- 15일 국제유가는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중국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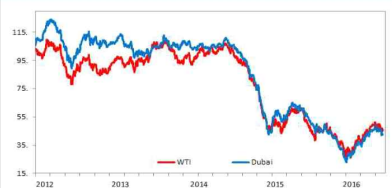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국제유가	
	기준일	전일대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5	환율	원/달러	1,141.8
	옥수수	178		달러/유로	1.1112
	대두	437	국제유가	WTI	45.95
	쌀	430		Dubai	42.5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8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7.14(수출가격), '16.07.15(환율), '16.07.15(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소득증대 우수사례 15건 발굴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한 우수사례 15건을 발굴해서 지난 7월 15일 농업인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힐링컨벤션타운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화 경진대회는 전남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마케팅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농촌문화 확산, 스마트팜 활성화, 창업아이디어) 분야에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5명을 선정하였다.
- 발표회는 각 분야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2명의 대표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분야별 대상받은 농업인은 마케팅 활성화 분야의 진도허브 지경준 대표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통한 우수고객 확보”, 농촌문화 확산 분야는 함평(이리네농장) 최정일 대표의 “함평 자율모임체 달빛누리 스토리”, 정보문화 확산분야는 화순(발효삼매경) 박나미 대표의 “팜파티 농가에서 팜파티 플래너로 변신하다”, 스마트팜 활성화 분야는 화순(해살짱토마토농장) 김창호 대표의 “스마트팜과 ICT 융복합으로 농업의 과학화로 부농을 일구다”, 창업아이디어 분야는 완도(바다농부) 오진영 대표의 “유자를 활용한 유자 과피 과일 드립커피”이다.
-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일 원장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업인 15명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과 포상금을 전수하고, 축사에서 “유통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농식품을 생산 가공”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성향 정보와 경쟁국가의 농업정보”를 활용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농촌진흥청의 김미희 연구관(지식정보담당관실)은 농업인이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에서 원하는 정보가 배달되는 시대”에 필요한 “농업기술 디지털 큐레이션 기술”을 소개하였다.
- 농업경영연구소 임경호 소장은 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농업인에게 확산을 위해 2017년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름철 농식품 정보는 ‘소비공감’ 에게 물어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농식품 소비활동과 농업·농촌 가치 공감을 위해 농식품 종합정보지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에 이어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 소비공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소비활동을 촉진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온라인 웹진형태로 처음 발간하여 2014년부터는 잡지형태로 발행(800부)하였고, 올해는 계간지로서 연간 총 4만부(호당 1만부)로 발행부수를 대폭 늘렸다.
-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농협은행, 지자체 민원실, 대형마트 문화센터, 종합병원 등에 배포되고, 푸드누리(www.foodnuri.go.kr)에도 웹진 형태로 게시되어 더 많은 소비자에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 농식품 소비공감은 우리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여름호는 ‘공감’을 컨셉으로 농식품·지식·농촌·독자 공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식품 공감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주제로 종류별 특징, 영양효능, 보관법, 손질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짝 찬 수분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더위를 이기게 해주는 수박·참외·자두 등 제철 농산물을 소개하여 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지식공감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푸른초원농원을 소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고,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농장)을 소개하여 도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텃밭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이색적인 독일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 농촌공감에서는 국내 최초의 낙농체험목장인 대신목장, 향긋한 허브와 꽃이 가득한 팜카밀레 관광농원,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칠보산 자연휴양림 등을 소개하여 여름철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독자공감에서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한 GAP, 로컬푸드 교육·체험활동과 농식품 안전관리 현장 팸투어를 수록하여 농식품 소비정책을 소비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재미있게 알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소개하여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등 개정된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썼다.
- 농식품 소비공감 여름호는 독자들께 직접 소통하고 독자 의견을 듣기 위해 후기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50명을 선정하여 농식품 제철 꾸러미 등을 주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 농식품부 박성우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농식품 소비공감 여름호는 제철 농산물, 여름철 농촌 휴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교육·홍보활동을 포함하여 현장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고 말하고 “농식품 소비공감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9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